

# 안방 강세·상대 전적 우위 헥터가 있다

KIA, 홈서 19승13패 ... SK에 4승1패·LG엔 4승2패로 앞서  
 헥터 6연승 도전 ... '위기의 선발' 윤석민·팻틴 등 변수 남아

## T 타이거즈 전망대

◆2018 KBO리그 팀순위 (11일 현재)

순위	팀명	경기	승	무	패	승률	게임차
1	두산	62	42	0	20	0.677	0.0
2	한화	63	36	0	27	0.571	6.5
3	SK	62	35	0	27	0.565	7.0
4	LG	66	37	0	29	0.561	7.0
5	KIA	62	32	0	30	0.516	10.0
6	넥센	66	31	0	35	0.470	13.0
7	삼성	65	30	0	35	0.462	13.5
8	롯데	61	27	0	34	0.443	14.5
9	KT	64	27	0	37	0.422	16.0
10	NC	65	21	0	44	0.323	22.5

헥터가 '호랑이 군단'의 순위 싸움 전면  
 에 선다.

수원·사직으로 이어지는 원정 6연전 길  
 에 올랐던 KIA 타이거즈가 '원정 징크스'  
 탈출이라는 소문을 안고 안방으로 돌아왔  
 다.

앞서 KIA는 원정 약세를 보여왔다.

가장 최근 원정이었던 NC(5월 25일-  
 27일)와의 경기에서 시즌 첫 원정 위닝 시  
 리즈를 거둬 정도로 원정에서 약한 모습이  
 었다. 당연히 원정 승률도 9승 16패,  
 0.360에 불과했다.

그러나 kt를 상대로 올 시즌 첫 원정 스  
 랩에 성공한 KIA는 사직에서는 한 경기를  
 비로 치르지 못하고 1승 1패를 거두고 왔  
 다. 원정 승률도 0.433(13승 17패)로 높  
 아졌다.

안방 강세, 상대 전적 우위가 새로운 한  
 주의 키워드다.

KIA는 올 시즌 홈에서 19승 13패의 전적  
 을 내면서 0.59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.

주중 안방에서 만나는 SK 와이번스에는  
 4승 1패로 앞서 있다. 잠실로 가서 상대하  
 는 LG 트윈스와의 상대 전적에서도 4승 2  
 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.

'원정 징크스'에서 벗어난 KIA는 10일  
 에는 행운의 노계임까지 나오면서 원정 6  
 연전을 기분 좋게 마무리했다. 헥터가 상  
 승세를 이어 순위 싸움에 불을 붙인다.

헥터는 요즘 KIA 선발진 중에서 가장  
 잘 나오는 선수다.

지난 5월 1일 롯데전에서 패전 투수가  
 된 이후 패배를 잊었다. 승패가 기록되지  
 않은 5월 13일 삼성전을 제외하고 5연승  
 을 기록하고 있다.

특히 지난 5월 19일 SK와의 경기는 헥  
 터의 불안감을 지운 터닝포인트가 됐다.

지난해에 비교해 매서움이 떨어졌던 헥  
 터는 김광현을 앞세운 SK와의 경기에서 9  
 이닝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2-1 완투  
 승을 장식했다. 이 경기 이후 '헥터다운'

피침이 살아나면서 연승 중이다.

12일 헥터는 터닝포인트를 이뤘던 SK  
 를 다시 만난 6연승에 도전한다. 이번에도  
 김광현이 헥터의 상대로 나선다.

정상 로테이션상으로는 17일 LG와의  
 경기에서도 헥터가 출격한다. 헥터는 올  
 시즌 LG와 두 차례 만나 1.50 평균자책점  
 으로 1승을 기록했다. 이 승리가 잠실 LG  
 전(3월 30일)에서 기록된 헥터의 시즌 첫  
 승이다.

헥터가 앞선 좋은 기억들을 살려 한 주  
 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.

마운드에 또 다른 변수는 '위기의 선발'  
 팻틴과 윤석민이다.

윤석민의 복귀와 함께 KIA는 마운드에  
 변화를 줬다. 윤석민이 선발 자리에서 테  
 스트를 받게 되면서, 부상 여파로 지난해  
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임기영이 통릴리프  
 필승조로 이동했다.

윤석민이 지난 8일 두 번째 등판에서도  
 '한방'에 무너지면서 물음표를 남겼지만,  
 임기영은 지난 한주 결정적인 상황에서 1  
 홀드와 1승을 기록하며 불펜에 힘을 실어  
 주었다.

고민 많은 윤석민과 함께 불운이 겹쳤던  
 팻틴도 불안하게 선발 타이틀을 지키고 있  
 다.

답답했던 불만을 뒤로하고 순위싸움에  
 속도를 내야 하는 만큼 윤석민과 팻틴의  
 성적표에 따라서 KIA 마운드의 틀도 달라  
 질 전망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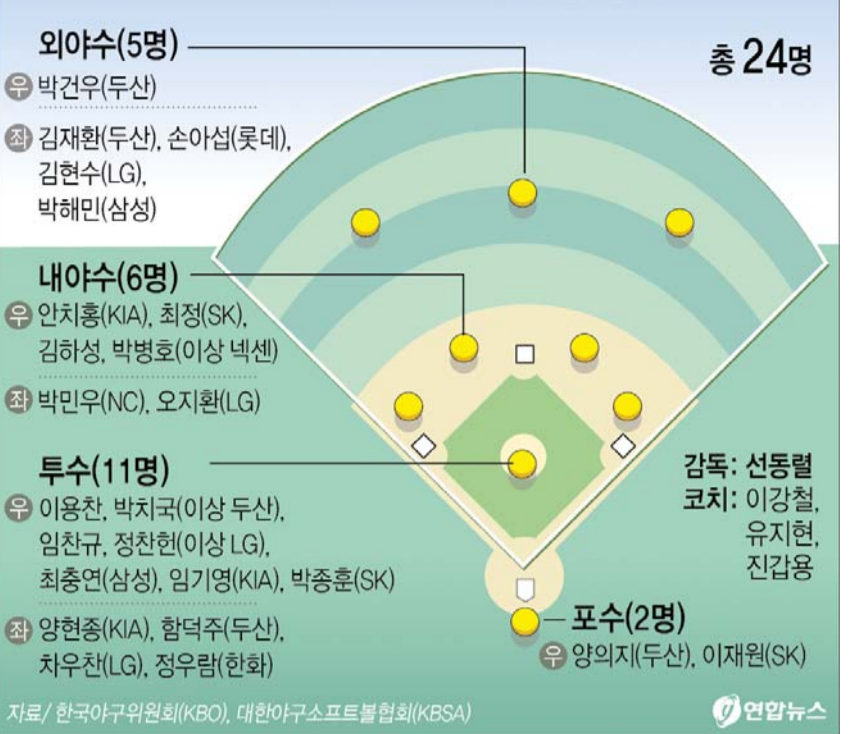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

지난해에 비해 매서움이 떨어졌던 KIA 헥터는 지난 5월 19일 SK와의 경기에서 9이닝  
 을 1실점으로 틀어막으면서 2-1 완투승을 장식한 뒤 5연승을 달리고 있다.

<KIA 타이거즈 제공>

## 2018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최종 명단



## KIA 양현종·안치홍·임기영 태극마크

### 아시아 게임 대표팀 24명 선발

KIA 타이거즈의 양현종, 임기영, 안  
 치홍이 한국을 대표해 자카르타-팔렘  
 방을 찾는다.

한국야구위원회(KBO)와 대한야구  
 소프트볼협회(KBSA)는 11일 오후 2  
 시 KBO 회의실에서 2018 자카르타-  
 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 
 코칭스태프 회의를 열고 최종 엔트리  
 24명의 명단을 확정했다.

KIA에서는 '에이스' 양현종과 '4할  
 타자' 안치홍이 예상대로 엔트리에 이  
 름을 올렸다. 사이드암 임기영도 '깜짝  
 발탁' 되면서 KIA에서는 3명의 선수가  
 태극마크를 단다.

양현종, 임기영과 함께 투수에서는

박치국·이웅찬·함덕주(이상 두산), 박종  
 훈(SK), 임찬규·정찬현·차우찬(이상 LG  
 ), 정우람(한화), 최충연(삼성) 등 11명  
 이 선발됐다.

포수는 양의지(두산), 이재원(SK) 등  
 두 명으로 구성됐다.

내야수는 안치홍과 함께 박민우(NC),  
 최정(SK), 오지환(LG), 김하성·박병호  
 (이상 넥센) 등 6명, 외야수는 김재환, 박  
 건우(이상 두산), 손아섭(롯데), 김현수  
 (LG), 박해민(삼성) 등 5명이다.

KBO는 최종 선발한 24명의 명단을 15  
 일까지 KBSA에 제출할 예정이다.

회의에는 선동열 감독을 비롯해 이강  
 철, 이종범, 유지현, 정민철, 진갑용, 김재  
 현 코치 등 코칭스태프 전원이 참석했다.

/김여울 기자 wool@kwangju.co.kr

### 강정호 트리플A 승격

강정호(31·피츠버그 파이리츠)가 싱  
 글A에서 트리플A로 승격하며 빅리그  
 복귀에 한 걸음 다가갔다.

피츠버그 산하 트리플A 구단인 인디애  
 나폴리스 인디언스는 강정호를 12일(한  
 국시간)부터 열리는 탈리도 머드 헨스  
 (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산하)와 4연전에  
 맞춰 승격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.

2016년 서울에서 음주 운전이 적발된  
 강정호는 올해 초 친선만고 끝에 미국 취  
 업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으로 건너갔다.  
 피츠버그 구단은 강정호를 산하 싱글

A 구단인 브레이든턴 머로더스로 보내  
 실전 감각 회복을 도왔다.

강정호는 싱글A 7경기에서 타율  
 0.417(24타수 10안타), 3홈런, OPS  
 1.406으로 맹타를 휘둘렀다.

싱글A에서 성공적으로 타격 감각을  
 끌어 올린 강정호는 트리플A에서 빅리  
 그 복귀를 위한 마지막 점검에 들어간  
 다.

강정호는 2016년 초반과 후반 부상 회  
 복을 위해 트리플A 구단인 인디애나폴  
 리스에서 잠시 뛰었고, 16경기에서 타율  
 0.146과 홈런 2개를 기록했다.

/연합뉴스

### 2타점 추신수 26경기 연속 출루

추신수(텍사스 레인저스)가 안타로  
 26경기 연속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.

추신수는 11일 휴스턴 에스트로스  
 와 홈경기에서 1번 타자 좌익수로 선발 출전  
 해 5타수 1안타 2타점으로 활약했다.

지난달 14일 휴스턴 에스트로스전 이  
 후 한 경기도 빠짐없이 출루에 성공한 추  
 신수는 2012년부터 2013년에 걸쳐 세운  
 개인 최장 연속 경기 출루인 35경기 기록  
 에 9경기 차로 접근했다.

추신수의 시즌 성적은 타율 0.267  
 (251타수 67안타), 11홈런, 29타점이

다.

1회말 첫 타석에서 투수 땅볼로 물러  
 난 추신수는 0-6으로 뒤진 2회말 2사 1-  
 2루에서 두 번째 타석을 맞았다. 포수 패  
 스트볼로 주자가 한 베이스씩 진루했고,  
 추신수는 중견수 앞 안타로 주자를 모두  
 홈에 불렀다.

이후 2번의 타석에서는 야수 정면으로  
 타구가 향하는 등 운이 따르지 않았다.

팀은 7-7로 맞선 9회초 2사 2-3루에서  
 나온 키오니 켈라의 보크로 허무하게 7-  
 8로 졌다.

/연합뉴스

### 최지만 탬파베이서 새 출발

제한된 기회에 좌절했던 최지만  
 (27)이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  
 에서 새 출발 한다.

미국 탬파베이 타이म्스는 11일 '탬파베  
 이가 브래드 밀러와 현금을 밀워키 브루  
 어스에 내주고 최지만을 영입했다'고 밝  
 혔다.

최지만 소속사 GSM도 "최지만이 탬  
 파베이에서 새 출발 한다"고 트레이드 확  
 정을 알렸다.

최지만은 10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 
 방문경기에서 6회 대타 만루포로 결승타  
 를 만들었다. 하지만 밀워키는 11일 최  
 지만을 트리플A 콜로라도 스프링스로

내려보냈다.

표면적인 이유는 11일 선발 등판하  
 는 우완 투수 브랜던 우드러프의 현역 엔트  
 리 등록이었다. 이번에는 '트레이드 시  
 도'가 있었다.

GSM은 "탬파베이는 지난겨울에도 최  
 지만에게 관심을 보인 팀"이라고 전했  
 다. 당시 탬파베이는 최지만에게 '40인  
 로스터 등록'을 영입 조건으로 내걸기도  
 했다.

최지만에게 탬파베이는 6번째 팀이  
 다. 2010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하며  
 프로 생활을 시작한 최지만은 2015년 시  
 즌 종료 뒤 볼티모어 오리올스로 이적했  
 고, 2016년 월5 드래프트로 로스앤젤레  
 스 에인절스에 입단했다.

/연합뉴스

## '휴신' 나달 프랑스로 11번째 우승



10일(현지시간) 프랑스 파리에서 막을 내린, 금년 두 번째 테니스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우승자 라파엘 나달(1위·스페인)이 트로  
 피에 얼굴을 파묻고 감회에 젖어 있다. 나달은 남자단식 결승에서 도미니크 팀(8위·오스트리아)을 3-0으로 누르고 이 대회에서만 2  
 연패에 성공하는 한편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.

/연합뉴스

클레이 코트 최강자 라파엘 나달(1위·스  
 페인)이 올해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  
 스오픈 테니스대회(총상금 3919만7000유  
 로·약 516억원) 남자단식 정상에 올랐다.

나달은 10일(현지시간) 프랑스 파리에  
 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남자단식 결승에  
 서 도미니크 팀(8위·오스트리아)을 3-0  
 (6-4 6-3 6-2)으로 눌렀다.

지난해 이 대회 우승으로 특정 메이저 대  
 회 단식 최다 우승(10회) 기록을 수립했던  
 나달은 대회 2연패에 성공해 프랑스오픈 단  
 식에서만 11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.

또한, 나달은 메이저 대회 17번째 우승  
 으로 로저 페더러(2위·스위스)의 메이저  
 대회 20회 우승 기록에 한 발 더 다가갔다.

나달은 1세트 4-4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  
 의 서비스 게임을 지킨 뒤 팀의 서비스가  
 흔들리는 걸 놓치지 않고 브레이크에 성공  
 했다.

2세트도 비슷한 양상이었다. 나달은 게  
 임 스코어 1-0에서 팀의 서비스 게임을 브  
 레이크했고, 자신의 서비스 게임은 확실하  
 게 지키면서 6-3으로 2세트마저 따냈다.

나달은 3세트에서 전의를 잃은 팀을 차  
 분하게 밀어붙이면서 경기를 마무리했다.

이로써 나달은 프랑스오픈 결승 승률  
 100%(11전 전승), 클레이코트 5세트 경  
 기 승률 98.2%(111승 2패), 프랑스오픈  
 통산 승률 97.7%(86승 2패)이라는 압도  
 적인 성적으로 '휴신'임을 입증했다.

2011년 프로 데뷔 이후 처음으로 메이  
 저 대회 결승에 진출한 팀은 경험 부족을  
 노출하며 고배를 마셨다.

/연합뉴스